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에 따른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관계: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박 주 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수련생

임 종 민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474명의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질문지, 사건관련반추 척도, 정서접근적 대처 척도, 외상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고, 측정동일성 검증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집단 모두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사이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관계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의 매개효과와 침습적 반추가 정서접근적 대처, 의도적 반추를 순서대로 경유하여 외상후 성장에 도달하는 이중매개 효과는 대인외상 집단에서는 유의했으나 비대인외상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후 성장 모델에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개인에 비해 대인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인지적·정서적으로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침습적 반추, 정서접근적 대처, 의도적 반추, 외상후 성장

[†] 이 논문은 박주희의 석사학위 청구논문(2022)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문선,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3-950-7161, E-mail: moonsun@knu.ac.kr

우리는 인생 전반의 과정에 걸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질병 혹은 사망과 같은 외상(trauma)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외상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송현, 이영순, 2018; Ozer, Best, Lipsey, & Weissert, 200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에서 평생 한 번 이상의 외상을 경험한 비율은 70~85%였고, 국내 연구의 경우 78.8%로 나타났다(김수민, 2022; Shin, Jeon, & Sakong, 2012).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 중 삶의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 이전의 적응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경험하며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 외상 이후 개인 간 적응과 성장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 경험 이후 심리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성장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알아보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제를 밝혀내는 것은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사건의 자신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료 장면에서도 삶의 위기를 겪은 내담자가 과거 경험부터 현재 삶까지 전체를 아우르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Tedeschi와 Calhoun(2004)은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주관적인 강력한 경험’으로 외상 사건을 정의했다. ‘주관적인 강력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투쟁하며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이것이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다. 본 연구는 Calhoun과 Tedeschi(2010)의 연구에서 확립한 외상후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선정하였다. Calhoun과 Tedeschi(2010)는 2004년, 200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외상 연구를 통해 외상후 성장 모델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들은 2010년 연구에서 확립한 모델을 바탕으로 외상후 성장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사건 직후 침습적 반추를 경험하게 되며, 외상과 침습적 반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자신의 수준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게 되면 의도적 반추도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외상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자신의 가치와 신념체계, 삶의 목표 등 내적 도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Calhoun et al., 2010). 외상 사건을 경험한 직후 사건에 대해 원치 않는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침습적 반추를 경험하며 그와 함께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 정서적 고통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경험한 외상사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생각하며 반영적이고 숙고적인 의도적 반추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외상 경험의 의미를 찾고,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외상후 반추 과정은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인지적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다(Calhoun et al., 2010; Tedeschi & Calhoun, 1995, 1996). Tedeschi와 McNally(2011)는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 중 반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곽아름, 박기환, 2018;

박예슬, 2013; 신선영, 2009; 한은애, 2015; Bower, Kemeny, Taylor, & Fahey, 1998; Calhoun, Cann, Tedeschi, & McMillan, 2000; Taku, Cann, Tedesch, & Calhoun, 2009).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는 다수의 개인도 외상 직후 침습적 반추를 경험한다(Tedeschi & Calhoun, 2004). 그러나 초기의 불수의적이고 자동적인 반추는 시간이 지나며 반영적이고 의도적인 반추로 나아가게 된다. Calhoun과 Tedeschi(2004, 2006, 2010)에 의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여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이행되는지 설명되었지만,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침습적 반추는 외상후 성장을 위한 관문인 의도적 반추에 선행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외상후 심리적 스트레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외상 이후 반추의 이행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두 반추 사이에 작용하는 변인에 관한 초기 선행연구에서는 외상후 성장의 촉진 요소로 인지적 변화를 강조했다. 초기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고통의 완화가 인지적 변화를 준비하는 필수적 경로에 불과한 것으로 언급하였다(Calhoun & Tedeschi, 2004). 하지만, 최근 외상후 성장 연구에서는 정서적 변화와 관련된 변인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ann과 Tedeschi(2010)는 정서적 고통 조절과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켜 외상후 성장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Allen(2010)의 저서에서 정서를 더욱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외상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Calhoun과 Tedeschi(2010)는 이전 연구를 개정, 종합한 외상후 성장 모델에서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외상 이후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정서적 고통의 관리를 강조하였다. Joseph 등(2012)이 기존의 외상후 성장 모델을 수정한 ‘외상후 성장의 정서-인지적 처리 모델(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에서도 인지적 도식의 재건과정에 더해 정서 상태의 변화를 외상후 성장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초기 선행연구들은 외상후 성장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만 강조하기도 하였으나, Calhoun과 Tedeschi(2010)의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를 경험한 후 정서적 고통을 적절히 다룰 수 있을 때 의도적 반추로 이행되는 것이 외상후 성장에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최근 국내 연구에서 정서지능(송현, 이영순, 2011), 정서 조절전략(유현진, 김영혜, 2013), 정서인식명확성(조한로, 정남운, 2017) 등 정서적 변인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신용찬, 김영근, 201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 성장 연구에서 이미 인지적 과정으로 강조되어 온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순차적 과정에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는 정서적 변인을 추가하여 외상후 성장을 이끄는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통합적,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후 성장 과정에서 인지적 변인의 역할과 함께 정서적 고통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는 외상 유형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외상 경험 관련 변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고(이수림, 2015), 외상후 성장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외상 유형, 사회적지지, 대처, 인지적 과정, 정서, 고통 정도 등이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변인으로 주목받았다(Linley & Joseph, 2004). 외상 경험

의 특징에는 외상사건 유형, 외상 경험 시기, 외상의 중요도 및 고통 정도가 포함된다. 그중 대표적인 특징은 외상사건의 유형이다(이수립, 2013). Allen(2005)은 외상을 다양한 형태로 구분했으며, 그중 대인관계 관여도에 따라 대인관계 외상과 비대인관계 외상으로 구분했다. 최승미(2008)는 외상 가해 요인에 따라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으로 구분했다. 즉, 외상사건은 고의적으로 타인에 의해 발생한 외상을 대인외상으로 구분하고,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직접적 가해자가 없는 경우의 외상을 비대인 외상으로 구분한다(김보미, 유성은, 2012; 이수립, 2013; Allen, 2005). 외상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비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보다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Allen, 2005, 2010), 대인외상 경험자의 불안 및 우울,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경, 2012; 주혜선 외, 2009).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대인외상 경험은 정서 조절 곤란과 경계선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아람, 김남재, 2012), 외상후 성장 연구에서 비대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승미, 2008). 즉, 비대인 외상에 비해 대인외상으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 정도가 더 심하고, 외상후 성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박지은, 정남운, 2016; 서영주, 2018; 윤명숙, 박아란, 2015; 이수립, 2013) 상대적으로 대인외상 경험 후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처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외상사건의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외상후 성

장 관련 변인들과 관계를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즉, 외상후 성장 모델에서 고통스러운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강조되는 인지적·정서적 변인들이 외상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외상유형에 따라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 집단을 구분하여, 외상 경험 후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는 대처 변인의 영향이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사건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인 ‘대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처 방식은 Lazarus와 Folkman(1984)이 자신들의 저서에서 제시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이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적 노력, 정보 탐색,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생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시행,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 평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정서중심적 대처는 거리두기, 회피, 최소화 등의 기법들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과 노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이은희, 이주희, 2001). Lazarus와 Folkman(1984)은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가 모두 적응 잠재력을 가진 대처로 보았으나, 대처 척도들을 사용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 문제중심적 대처가 더 적응적인 대처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서중심적 대처가 부적응, 심리적 고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Aldwin, 2015).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서중심적 대처의 기존 정의에 접근지향적 대처와 회피지향적 대처가 혼입되었

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는 것에 적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신재은, 2019; Krantz & Moos, 1987; Littrell & Beck, 2001; Stallard et al., 2001). 이에 Stanton 등(1994)이 정서에 기반을 둔 대처의 적응 잠재력으로 정서중심적 대처의 조작적 정의를 수정하여 적응적인 정서중심적 대처를 의미하는 ‘정서접근적 대처’를 제시하였다. 정서접근적 대처(Emotional Approach Coping)는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과 정서처리(Emotional processing)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정서표현은 정서경험을 소통하고 상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언어적·비언어적 시도를 하는 것이며, 정서처리는 정서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여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김미영, 2019; Stanton et al., 2000). 외상후 성장과 정서접근적 대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지만, 국내외 연구에서는 정서접근적 대처의 정서표현과 정서처리를 하위변인으로 포함하는 정서기반대처가 외상과 외상후 성장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영주, 김영근, 2018; Armeli et al., 2001; Manne et al., 2004). 또한 유방암 생존자 연구에서 정서접근적 대처 중 정서표현의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e et al., 2004). 이처럼 정서접근적 대처의 하위요인인 정서표현과 정서처리 모두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서접근적 대처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국외의 연구들이며,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외상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비대인의

상 경험자들에 비해 대인외상 경험자들의 정서적 고통 정도가 더 심하고, 외상후 성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인외상 경험 이후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서적 고통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정서 관련 대처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침습적 반추 이후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는 변인으로 정서접근적 대처를 사용하여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 이후 개인이 이전의 적응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고통 관리의 중요성을 보고한 선행연구(Calhoun & Tedeschi, 2004, 2010)와 외상사건 유형에 따라 외상으로 인한 고통의 수준과 외상후 성장 정도가 다르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지은, 정남운, 2016; 서영주, 2018; 윤명숙, 박아란, 2015; 이수림, 2013)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선정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정서접근적 대처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사이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대인외상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사이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침습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 효과가 대인외상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를 통해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적이 있고, 외상 경험 당시 주관적 고통감을 '보통 초과'로 응답한 5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7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비는 여성이 243명(51.3%), 남성이 231명(48.7%)이었다. 연령 범위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었으며, 응답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21.6세 ($SD=5.50$)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1년 8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21-0171)의 승인을 받은 후 IRB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사용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인바이트)를 통해 2021년 9~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참여자와 대면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 시작 전 첫 화면에서 연구 목적을 밝히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

하는 부작용 및 예상치 못한 위험성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 등을 명시하였다. 이후 안내 사항에 동의한 참여자들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외상경험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외상 경험을 측정하고자 송승훈(2007)의 외상경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신선영(2009)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외상 경험이 없는 응답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외상 경험 당시의 주관적 고통, 최근의 고통을 응답하도록 7점 척도(1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7점: 매우 고통스러웠다)를 사용하였다. 외상사건은 기존의 신념체계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주관적인 고통이 수반되어야 하므로(박애실, 2016), 외상 당시 주관적 고통감의 보통(4점) 이하의 응답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인외상이 단순외상 및 비대인외상보다 심각성이 크다는 선행연구와(이수림, 2013; 이미연 외, 2012; 최승미, 2008), 외상 유형을 외상 가해 요인에 따라 구분한 선행연구에 따라(김보미, 유성은, 2012; 이수림, 2013; Allen, 2005) 본 연구에서도 고의적으로 타인에 의해 발생한 외상을 대인외상으로, 직접적 가해자가 없는 경우의 외상을 질병과 재해 등의 비대인외상으로 구분하였다. 외상사건 유형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 경험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대인외상 경험에는 적응의 어려움,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정불화, 범죄피해, 성추행 및 성폭력, 어린 시절의 학대, 대인관계 파탄, 배신 충격을 포함시켰다. 비대인외상 경험에는 사고 및 상해, 자연재

해, 학업 및 과업 문제,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재정적 어려움, 사랑하는 또는 의미있는 사람의 질병 및 사망, 실직 혹은 구직의 실패를 포함시켰다. 기타의 경우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 경험의 간략한 서술 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대인의상과 비대인의상으로 나누었다.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orean-Ruminative Response Scale: K-ERRI). ERRI는 Cann 등(2011)에 의해 개발된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주요한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인 사건관련 반추, 즉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Cann 등(2011)이 개발, 타당화 하고 안현의 등(2013)이 변안, 타당화 한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를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인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 10문항) 및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 1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4점: 자주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각각의 하위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반추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안현의 외, 2013). Cann 등(2011)이 타당화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침습적 반추 .94와 의도적 반추 .88로 나타났고, 안현의 등(2013)이 타당화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침습적 반추 .96, 의도적 반추 .95로 양호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침습적 반추 .95와 의도적 반추 .93으로 나타났다.

정서접근적 대처 척도(Emotional Approach Coping scale: EAC).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과 정서처리의 하위요인을 둔 정서접근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서 Stanton 등(2000)에 의해 개발되고, 강성록과 양재원(2015)에 의해 변안된 정서접근적 대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과 정서처리(emotional processing)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대체로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과 정서처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를 제시하면 “나는 나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내 감정을 인정한다”, “나는 내 감정을 가까이 표현한다” 등이 있다. 강성록과 양재원(2015)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 .89이고, 정서표현은 .88, 정서처리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 .86, 정서표현 .84, 정서처리 .82로 나타났다.

외상후 성장 척도(Korean-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 성장을 측정하고자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 타당화한 21문항으로 구성된 미국판 PTGI를 송승훈 등(2009)이 변안, 수정, 타당화한 16문항의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16문항의 4요인(자기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고, 6점 척도(1점: 경험하지 못함, 6점: 매우 많이 경험)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을 제시하면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등이 있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 .91이고, 하위요인은 .70~.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 .93이고, 각 하위요인은 .65~.9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연구 분석을 위해 AMOS 21.0 및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의 이상치, 결측치와 자료의 정규성 검토 및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PSS 21.0을 이용해서 변수의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성개념 타당도 확인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TLI와 CFI는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Bentler, 1990) RMSEA는 .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5~.08 사이이면 적당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2). 셋째,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각 집단이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AMOS 21.0을 사용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1단계 형태동일성, 2단계 측정단위 동일성, 3단계 절편동일성을 만족하면 측정동일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서 적합성 및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의 독립변수인 침습적 반추와 종속변수인 외상후 성장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AMOS 21.0

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수행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행하였다. 팬텀 변인을 활용하여 특정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외상사건의 유형

외상사건 경험자가 응답한 가장 고통스러웠던 외상사건의 유형을 기준으로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을 구분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인외상은 249명(52.53%)이었고, 비대인외상은 225명(47.47%)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적응의 어려움이 85명(17.93%)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 파탄과 학업 및 과업 문제가 각 50명(10.55%), 사랑하는 또는 의미 있는 사람의 사망이 46명(9.70%),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정불화가 41명(8.65%)으로 뒤를 이었다.

외상사건의 발생 시기

외상사건의 발생 시기는 설문 응답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20년 이상 안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처럼 10년~20년 전(112명, 23.63%), 6년~10년 전(91명, 19.20%) 순으로 많았다.

표 1. 외상사건의 유형

영역	구분	빈도	백분율(%)
대인외상	적응의 어려움 (학교, 사회, 군대에서의 소외, 따돌림)	85	17.93
	이혼이나 별거 (본인 및 부모) 혹은 가정불화	41	8.65
	범죄 피해 (구타, 폭행, 강도 등)	8	1.69
	성추행 및 성폭력	15	3.16
	배신 충격 (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	36	7.59
	어린시절의 학대	12	2.53
	대인관계 파탄 (이별, 실연, 절교 등)	50	10.55
	기타	2	0.42
소계		249	52.53
비대인외상	사고 및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	35	7.38
	자연재해 (홍수, 지진, 폭설 등)	5	1.05
	학업, 과업 문제 (낙방, 실패, 좌절 등)	50	10.55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16	3.38
	재정적 어려움 (부도, 파산, 신용불량 등)	27	5.70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질병	27	5.70
	실직 혹은 구직의 실패	13	2.74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사망	46	9.70
기타	6	1.27	
소계		225	47.47
합계		474	100.00

표 2. 외상사건의 발생 시기, 사건 발생 당시 고통감, 최근 고통감

구분	빈도(명)	비율(%)	
외상사건의 발생 시기	6개월 이내	42	8.86
	7개월~12개월 전	30	6.33
	1년~2년 전	54	11.39
	2년~3년 전	51	10.76
	3년~6년 전	69	14.56
	6년~10년 전	91	19.20
	10년~20년 전	112	23.63
	20년 이상	25	5.27
합계	474	100.00	
당시 고통감	약간 고통스러웠다	83	17.51
	고통스러웠다	172	36.29
	매우 고통스러웠다	219	46.20
	합계	474	100.00
최근 고통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46	9.70
	고통스럽지 않았다	47	9.92
	약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47	9.92
	보통이다	73	15.40
	약간 고통스럽다	106	22.36
	고통스럽다	88	18.57
	매우 고통스럽다	67	14.14
	합계	474	100.00

표 3. 집단별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척도 및 왜도

		1	2	3	4	<i>M(SD)</i>	왜도	첨도
대인외상 (<i>N</i> =249)	침습적 반추	1				2.25(.81)	.36	-.67
	정서접근적 대처	-.15*	1			2.80(.68)	-.29	-.29
	의도적 반추	.45**	.12	1		2.20(.79)	.29	-.67
	외상후 성장	-.22**	.43**	.24**	1	3.49(.97)	-.27	-.35
비대인외상 (<i>N</i> =225)	침습적 반추	1				2.28(.78)	.31	-.54
	정서접근적 대처	-.07	1			2.87(.51)	-.18	-.31
	의도적 반추	.49**	.22**	1		2.28(.73)	.73	.13
	외상후 성장	.00	.44**	.39**	1	3.79(.85)	-.39	.07

주. * $p < .05$, ** $p < .01$.

외상사건 발생 당시 고통감 및 최근 고통감

외상 경험 당시의 주관적 고통, 최근의 고통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외상 당시 주관적 고통감의 보통 이하의 응답(1점~4점)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외상 당시 주관적 고통감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가 219명(46.20%)로 가장 많았고, 외상 사건으로 인한 최근 고통감은 약간 고통스럽다가 106명(22.36%)로 가장 많았다.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 집단별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는 정서접근적 대처($r = -.15, p = .02$), 외상후 성장($r = -.22,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의도적 반추($r = .45, p = .00$)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접근적 대처는 외상후 성장($r = .43,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후 성장($r = .2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비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r = .49,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접근적 대처는 의도적 반추($r = .22, p < .01$), 외상후 성장($r = .4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r = .39, p < .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척도 및 왜도를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침습적 반추, 정서접근적 대처, 의도적 반추, 외상후 성장의 측정변인을 포함시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33.546 (p < .001)$, $df = 48$, TLI = .970, CFI = .978, RMSEA = .061 [90% CI .049~.074]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χ^2 은 표본의 수가 많아질 경우, 대부분의 값이 .05 미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형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

표 4.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B	S.E.	β	
침습적 반추	침습적 반추 1	1		.930	
	침습적 반추 2	.990	.028	.925	35.873***
	침습적 반추 3	.932	.025	.935	36.980***
정서접근적 대처	정서표현	1		.733	
	정서처리	.912	.098	.748	9.286***
의도적 반추	의도적 반추 1	1		.914	
	의도적 반추 2	.967	.033	.881	29.130***
	의도적 반추 3	.957	.029	.927	32.471***
외상후 성장	자가지각의 변화	1		.945	
	대인관계 깊이 증가	.890	.043	.792	20.850***
	새로운 가능성 발견	.576	.035	.665	16.363***
	영적 · 종교적 관심 증가	.632	.057	.490	11.143***

주. N=47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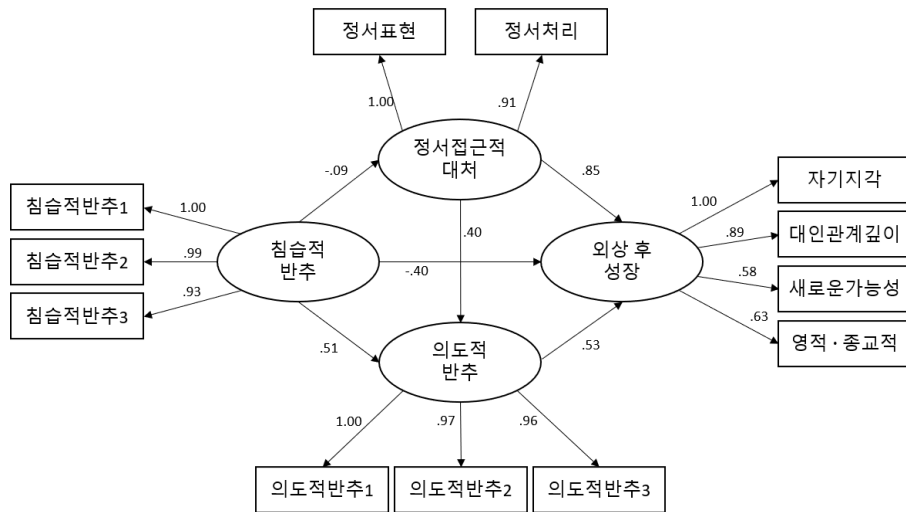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기 때문에 x^2 에 대한 결과가 적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면 모형으로 사용 가능하다(김성은 외, 2018).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그림 1과 표 4에서처럼 침습적 반추,

정서접근적 대처, 의도적 반추, 외상후 성장의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모형 의적합도는 $\chi^2=133.546(p<.001)$, $df=48$, $TMI=.970$, $CFI=.978$, $RMSEA=.061$ [90% CI .049~.074]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 2와 표 5에서처럼 침습적 반추는 정서접근적 대처($\beta=-.142$, $p=.011$)와 의도적 반추($\beta=.538$, $p<.001$), 외상후 성장($\beta=-.314$, $p<.001$)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접근적 대처는 의도적 반추($\beta=.282$, $p<.001$)와 외상후 성장($\beta=.439$, $p<.001$)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후 성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91$, $p<.001$).

측정동일성 검증

대인의외상 집단과 비대인의외상 집단의 요인구조가 동일한지 확인하고자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원칙적으로 두 모델 간의 χ^2 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지만 χ^2 차이검정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과도하게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동일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χ^2 차이검정으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면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B	S.E.	β	
침습적 반추 → 정서접근적 대처	-.094	.037	-.142	-2.529*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508	.042	.538	12.072***
침습적 반추 → 외상후 성장	-.404	.067	-.314	-6.058***
정서접근적 대처 → 의도적 반추	.401	.075	.282	5.358***
정서접근적 대처 → 외상후 성장	.851	.114	.439	7.433***
의도적 반추 → 외상후 성장	.532	.073	.391	7.321***

주. N=474, * $p<.05$, *** $p<.001$.

표 6.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모형	χ^2	df	모형적합도			근사적합도 지수 차이	
			TLI	CFI	RMSEA	RMSEA 차이	CFI 차이
1	161.437	96	.977	.983	.038	-	-
2	175.433	104	.977	.982	.038	0	-.001
3	211.090	116	.972	.976	.042	.004	-.006

주. 1 형태동일성 모형

2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 요인부하량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3 절편동일성 모형: 모형절편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으므로 근사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살펴 확인하기도 한다(Chen, 2007; Meade et al., 2008; Rutkowski & Svetina, 2014).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풀어진 모형 간 근사적합도 지수 차이가 특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결론 내린다(신미미, 김수영, 2020). CFI의 차이는 .01(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French & Finch, 2006)이하, RMSEA의 차이는 .015(Chen, 2007)이하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형태 동일성 모형적합도는 $\chi^2=161.437(p<.001)$, $df=96$, $TLI=.977$, $CFI=.983$, $RMSEA=.038$ 로 집단 간 형태 동일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단위 동일성의 검정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175.433(p<.001)$, $TLI=.977$, $CFI=.982$, $RMSEA=.038$ 였으며,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의 근사적합도 지수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Delta CFI=-.001$, $\Delta RMSEA=.000$ 로 나타났다. 절편 동일성의 검정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211.090(p<.001)$, $TLI=.972$, $CFI=.976$, $RMSEA=.042$ 였으며,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의 근사적합도 지수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Δ

$CFI=-.006$, $\Delta RMSEA=.004$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 두 집단은 모형의 형태뿐만 아니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측정단위의 동일성, 절편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잠재평균분석

전통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t -검증이나 ANOVA 등은 측정오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측 변수로 분석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배병렬, 2018). 또한, 측정오차를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평균 비교보다 관측변수들 간의 측정오차를 고려한 잠재변수 간 평균 비교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우종필, 2012). 앞서 3단계의 측정동일성(형태동일성, 측정단위 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잠재변수의 평균을 분석할 수 있었다.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서처럼 침습적 반추, 정서접근적 대처 및 의도적 반추에서는 집단 간 잠재변수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외상후 성장에서는 대인외상 집단이 비대인 외상 집단에 비해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잠재변수 평균을 보였다.

표 7. 외상유형에 따른 잠재변수들 간의 평균차이 검정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CR	p
	Estimate	SE		
침습적 반추	-.022	.075	-.290	.772
정서접근적 대처	-.081	.058	-1.394	.163
의도적 반추	-.077	.072	-1.078	.281
외상후 성장	-.318	.097	-3.292	<.001

주. N=474.

표 8.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유의도 검증

경로	대인외상(N=249)				비대인외상(N=225)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신뢰구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신뢰구간	
			lower	upper			lower	upper
침습적 반추 → 정서 접근적 대처	-.118*	-			-.052	-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507***	-.041*	-.107	-.004	.567***	-.034	-.108	.021
침습적 반추 → 외상후 성장	-.512***	.157	-.007	.336	-.226*	.160	-.047	.341
정서 접근적 대처 → 의도적 반추	.349**	-			.647***	-		
정서 접근적 대처 → 외상후 성장	.832**	.191**	.079	.345	1.135***	.297***	.153	.551
의도적 반추 → 외상후 성장	.547**	-			.459**	-		

주. * $p < .05$, ** $p < .01$, *** $p < .001$.

매개효과 검증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각 집단의 침습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으로 이행하는 관계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ower), 상한값(upper)

의 사이에 0이 없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한다(서영주, 2018; Bollen & Stine, 1992). 표 8과 9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가 정서접근적 대처($B = -.118$, $p = .019$), 의도적 반추($B = .507$, $p < .001$), 외상후 성장($B = -.512$, $p < .001$)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했다. 정서접근적 대처가 의도적 반추($B = .349$, $p = .006$)와 외상후 성장($B = .832$, $p = .001$)에 미치는

표 9. 경로의 특정 간접효과

경로	대인외상(N=249)			비대인외상(N=225)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lower	upper
a	-.098*	-.208	-.006	-.059	-.204	.036
b	.277***	.171	.427	.235***	.107	.378
c	-.022*	-.066	-.002	-.015	-.057	.007

주. a: 침습적 반추 → 정서접근적 대처 → 외상후 성장

b: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외상후 성장

c: 침습적 반추 → 정서접근적 대처 → 의도적 반추 → 외상후 성장

* $p < .05$, *** $p < .001$.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했고,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B=.547, p<.001$)도 유의했다. 펜텀변수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의 매개효과($B=-.098, p=.038$)가 부적으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B=.277,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침습적 반추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를 순서대로 경유하여 외상후 성장에 부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022, p=.025$).

비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B=.567, p<.001$), 외상후 성장($B=-.226, p=.049$)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했지만 정서접근적 대처($B=-.052, p=.259$)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접근적 대처의 직접효과는 의도적 반추($B=.647, p<.001$)와 외상후 성장($B=1.135, p<.001$) 모두에서 유의했고,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의도적 반추의 직접효과도 유의했다($B=.459, p<.001$). 펜텀변수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침습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의 매개효과($B=-.059, p=.228$)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의 사이에 0을 포함하므로(-.204~.036) 유의하지 않았고,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B=.235,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침습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관계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B=-.015, p=.193$)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의 사이에 0을 포함하므로(-.057~.007)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외상사건을 외상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인외상 집단과 비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는 정서접근적 대처, 외상후 성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의도적 반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접근적 대처는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접근적 대처는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외상후 성장 과정에서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와 정적 관계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안현의 외, 2013).

둘째, 잠재변인 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대인외상 집단이 비대인외상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외상후 성장 정도를 보였으며, 이는 비대인외상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대인외상 경험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상후 성장을 나타낸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최승미, 2008).

셋째, 침습적 반추에서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집단별로 확인하였다. 두 집단 모두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를 순서대로 경유하여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인외상 경험자와 비대인외상 경험자 모두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의 증가에 선행하고, 이를 통해 높은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박애실, 2016; 양귀화, 김종남, 2014; Triplett et al., 2012). 이는 외상 경험 직후 나타나는 불수의적,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생각인 침습적 반추가 상황을 이해하고자 적극적으로 반영적으로 생각하는 의도적 반추로 이행된 후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간다고 보고한 외상후 성장 모델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지지하며(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인지적 과정이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 경험자 모두에게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높은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고은심, 이민규, 2018; 곽아름, 박기환; 2018; 박애실, 2016; 양귀화, 김종남, 2014; 이동훈 외, 2017; 조한로, 정남운, 2017; Cann et al., 2011).

넷째, 침습적 반추에서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집단별로 확인하였다. 침습적 반추에서 정서접근적 대처를 순서대로 경유하여 외상후 성장으로 도달하는 경로는 대인외상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인외상 집단에서 침습적 반추와 정서접근적 대처의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서접근적 대처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침습적 반추에서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대인외상,

비대인외상 집단별로 확인하였다. 침습적 반추에서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를 순서대로 거쳐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는 대인외상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인외상 집단의 침습적 반추가 낮은 수준일 때 정서접근적 대처는 높은 편이고, 높은 수준의 정서접근적 대처는 의도적 반추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외상후 성장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인외상 집단에서 정서접근적 대처가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확인된다. 이는 이지영(2014)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이에 정서적인 경로를 통해 외상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정서접근적 대처의 하위요인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서영주, 김영근, 2018), 외상후 성장 과정 속 인지적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제안을 지지한다(Callhoun & Tedeschi, 2006). 또한,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외상에 대해 인지와 정서 과정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고은심, 2017; Herman, 2007).

외상 경험 직후 침습적 반추를 인간이 내적 조절 체계를 통해 적응적으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침습적 반추가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엄미선, 2014; 조한로, 2017; Triplett et al., 2012).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의 진단기준

을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시작된,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의 존재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진단하며, 같은 증상이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 내에 나타난다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로 진단한다. 그리고 DSM-IV에서는 3개월 이하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만성 PTSD로 진단하며, 외상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을 지연된 PTSD로 진단하고 있다(APA, 1994). 이러한 진단기준은 침습적 및 외상성 자극으로 유발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외상 자극에 대한 회피 등의 증상이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침습적 반추가 부적응적인 예후를 만성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침습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침습적 반추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적 고통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건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처리하려는 개인의 내적 동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승미, 2008). 다만,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침습적 반추가 주요인 인지적 과정이지만, 외상후 성장을 반드시 일으키는 충분조건을 될 수 없다는 선행연구(곽아름, 박기환, 2018)가 있으며, 이에 침습적 반추 이후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다른 변인들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대인외상 경험자는 비대인외상 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Friedman et al., 2007), 유의하게 높은 불안 및 우울 수준을 보인다(김희경, 2012). 즉, 침습

적 반추로 인해 유발된 정서적 고통을 적정한 수준에서 다룰 수 있어야 의도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으로 이행될 수 있는데, 이에 대인외상 집단의 정서접근적 대처의 역할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비대인외상 경험자에 비해 외상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박지은, 정남은, 2016; 서영주, 2018; 윤명숙, 박아란, 2015). 이러한 이유로 정서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대처방식인 정서접근적 대처를 기준으로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 집단 간 경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외상과 침습적 반추로 유발된 정서적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대인외상 경험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침습적 반추 이후 정서접근적 대처를 사용하여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고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상사건의 발생 시기가 3년 이상인 비율이 62.66%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인외상 경험자들이 3개월 이내에 경험하게 되는 외상경험 직후의 강렬하고 비의도적인 침습적 반추에 비해,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침습적 반추의 정도가 낮아지고,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서접근적 대처의 정도가 높아지며, 이에 의도적 반추의 수준이 상승하고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후 나타나는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행되어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는 요인인 정서접근적 대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서접근적 대처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서적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존의 외상후 성장 모델에서 주요 과정을 검증한 것과 함께 외상후 성장에 인지적 처리과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둘째,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 중요성이 제기되었던 외상사건의 특성 중 외상사건 유형에 따라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외상후 성장과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외상 집단이 비대인외상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외상후 성장 정도를 보였다. 각 집단별로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의 사이에서 정서접근적 대처 및 의도적 반추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유의했다. 그러나 침습적 반추와 외상후 성장 사이에 정서접근적 대처의 영향과 침습적 반추가 정서접근적 대처와 의도적 반추를 차례대로 거쳐 외상후 성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선 대인외상 집단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 경험자 모두에게 침습적 반추 이후 의도적 반추를 거쳐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인지적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대인외상 집단에서만 정서접근적 대처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과 부적응적 증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는 대인외상을 경험한 개인이(김희경, 2012; Frideman et al., 2007)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침습적 반추로 유발되는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정서접근적 대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인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지적 과정인 사건관련반추 사이에 정서접근적 대처의 정서적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는 외상을 경험하는 내담자들과 상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한 주관적인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담자는 외상 이후 발생하는 부적응적인 증상을 제거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외상 경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상의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정서적 고통이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선행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정서적 고통을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임했던 태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점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외상사건 경험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외상사건의 유형에 따라 내담자가 겪는 고통의 강도와 외상후 성장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내담자가 경험한 외상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개입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비대인외상에 비해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이 더 강한 대인외상은 인지적인 접근방식뿐만이 아니라 정서의 관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인외상을 경험한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한 정서적 고통에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는 반추의 수준을 파악하고, 각 수준에 따라 인지·정서적 요인을 통합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내담자가 높은 침습적 반추 수준에 있을 경우, 외상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이해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내담자가 낮은 침습적 반추 수준에 있을 경우, 정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비대면 설문을 진행하였으므로,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며,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연구참여자가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편향된 연구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표본의 대표성과 외적 타당도 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의 접근성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균등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개인의 주관적 기억과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응답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정서접근적 대처와 외상후 성장 척도의 경우 자신의 정서표현, 정서처리, 외상 성장 정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므로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험, 행동관찰, 추가 면접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사건의 발생 시기, 외상 경험 당시

주관적 고통감, 현재의 주관적 고통감이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주요 변인 간 구조적 경로를 탐색한 본 연구의 특성상 일반화와 해석에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의 특성, 주관적 고통감, 경험 시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외상후 성장의 과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록, 양재원 (2015). 정서접근적 대처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사관학교 생도 표본에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2), 455-475.
- 고은심, 이민규 (2018).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과 의도적 반추의 간접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85-800.
- 곽아름, 박기환 (2018).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고통제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4*(1), 69-89.
- 김미영 (2019). 유방암 생존자의 정서 접근적 대처, 정서 억제, 내면의 힘에 따른 외상 후 성장.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미, 유성은 (2012).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 생각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731-748.
- 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종훈, 김과현 (2018). 한번에 통과하는 논문: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 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주).
- 김수민 (2022). 침습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를 통한 인지적 재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3-1022.

- 박애실 (2016). 외상후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5), 181-200.
- 박예슬 (2013). 외상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심리적 수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정남운 (2016). 외상후 부정적 인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7(2), 167-185.
- 배병렬 (2018). Amos 24 고급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서영주, 김영근 (2018).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75-798.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송현, 이영순 (2011). 심리적 강인성과 정서기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231-1246.
- 송현, 이영순 (2018). 침투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적 자기노출,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5(4), 603-622.
- 신미미, 김수영 (2020). 범주형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다집단 확장.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Vol.*, 39(2), 175-204.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찬, 김영근 (2019).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기능 및 적극적 대처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0(3), 53-76.
- 신재은, 임희석 (2019). 정서접근적 대처,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잠재계층분석과 심리적 적응 수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909-925.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 (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정서조절곤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삼중매개효과와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5.
- 엄미선 (2014). 핵심신념 붕괴, 침투적 및 숙고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윤명숙, 박아란 (2015). 청소년의 대인외상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능력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7(3), 239-261.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성별에 따른 외상사건 경험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227-253.
- 이미연, 김지혜, 조용래 (2012). 외상유형, 자아 탄력성 및 외상후 부정적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41.
- 이수림 (2015). 외상 경험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39, 93-124.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이아람, 김남재 (2012).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27-243.
- 이은희, 이주희 (2015).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45-175.
- 조한로, 정남운 (2017).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및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433-455.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은애 (2015).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두 가지 반추 양식의 영향: 심리적 수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win, C. M., & Igarashi, H. (2015). Successful, optimal, and resilient aging: A psychosocial perspective. In P. A. Lichtenberg, B. T. Mast, B. D. Carpenter, & J. Loebach Wetherell (Eds.), *APA handbook of clinical geropsychology, Vol. 1. History and status of the field and perspectives on aging* (pp. 331-35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DSM-IV*.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meli, S., Gunther, K. C., & Cohen, L. H. (2001). Stressor appraisals, coping, and post-event outcomes: The dimensionality and antecedents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66-395.
- Bower, J. E., Kemeny, M. E., Taylor, S. E., & Fahey, J. L. (1998). Cognitive processing, discovery of meaning, CD4 decline, and AIDS-related mortality among bereaved HIV-seropositive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6), 979-986.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10).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Sociocultural considerations. In T. Weiss & R. Berger (Eds.), *Posttraumatic growth and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Lessons learned from around the globe* (pp. 1-1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3*(3), 521-527.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aku, K., Vishnevsky, T., Triplett, K. N., & Danhauer, S. C. (2010). A short form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3*(2), 127-137.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 French, B. F., & Finch, W. H.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proced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3), 378-402.
- Friedman, M. J., Resick, P. A., & Keane, T. M. (2007). PTSD: Twenty-five years of progress and challenges. In M. J. Friedman, T. M. Keane, & P. A. Resick (Eds.),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pp. 3-1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rman, D. (1996).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rrativ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seph, S., Murphy, D., & Regel, S. (2012). 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 traumatic growth. *Clinical Psychology &*

- Psychotherapy*, 19(4), 316-325.
- Krantz, S. E., & Moos, R. H. (1987). Functioning and life context among spouses of remitted and nonremitted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3), 353-36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7(1), 11-21.
- Littrell, J., & Beck, E. (2001). Predictors of depression in a sample of African-American homeless men: Identifying effective coping strategies given varying levels of daily stressor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7(1), 15-29.
- Manne, S., Ostroff, J., Winkel, G., Goldstein, L., Fox, K., & Grana, G. (2004). Posttraumatic growth after breast cancer: Patient, partner, and couple perspectives. *Psychosomatic Medicine*, 66(3), 442-454.
- Meade, A. W., Johnson, E. C., & Braddy, P. W. (2008). Power and sensitivity of alternative fit indices in tests of measurement invari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3), 568-592.
- Ozer, E. J., Best, S. R., Lipsey, T. L., & Weiss, D. S. (2003).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1), 52-73.
- Rutkowski, L., & Svetina, D. (2014). Assessing the hypothesis of measurement invariance in the context of large-scale international survey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4(1), 31-57.
- Shin, D. Y., Jeon, M. J., & Sakong, J. (201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elated factors in male firefighters in a metropolitan cit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4(4), 397-409.
- Stallard, P., Velleman, R., Langsford, J., & Baldwin, S. (2001). Cop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hildren involved in road traffic accid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2), 197-208.
- Stanton, A. L., Danoff-Burg, S., Cameron, C. L., & Ellis, A. P. (1994). Coping through emotional approach: Problems of conceptualization and confou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2), 350-362.
- Stanton, A. L., Danoff-Burg, S., Cameron, C. L., Bishop, M., Collins, C. A., Kirk, S. B., ... & Twillman, R. (2000). Emotionally expressive coping predicts psychological and physical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875-882.
- Taku, K., Cann, A.,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9). Intrusive versus deliberate rumination in posttraumatic growth across US and Japanese samples. *Anxiety, Stress, & Coping*, 22(2), 129-136.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 McNally, R. J. (2011). Can we

facilitate posttraumatic growth in combat veterans?. *American Psychologist*, 68(1), 19-24.

Triplett, K. N.,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 Reeve, C. L.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00-410.

원고접수일: 2023년 11월 17일

논문심사일: 2024년 1월 8일

게재결정일: 2024년 1월 8일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in Interpersonal Trauma and Impersonal Trauma: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Approach Coping

Joo-Hee Par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Hospital

Jong-Min L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n-Seon Ch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groups were divided according to interpersonal trauma and impersonal trauma. The specific effects of emotional approach coping and deliberate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in each group were identifi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this end, an accelerated survey through an online consumption survey site was conducted using the Awkward Experience Questionnaire, Event-Related Rumination Scale (K-SCS), Emotional Approaching Coping Scale (EAC), and the Post-Traumatic Growth Scale (K-PTG) for 474 people aged 18 or older.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1.0. Also, measurement identity and mediation effects were verified using AMOS 21.0. the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was confirmed in both the interpersonal trauma and impersonal trauma groups. As a resul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approach coping was not significant in the impersonal trauma group but interpersonal trauma group. Consequently, the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trauma progress to post-traumatic growth through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in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was empirically demonstrated. In addition, cognitive and emotionally integrated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compared to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impersonal trauma.

Keywords: Interpersonal Trauma, Impersonal Trauma, Intrusive Rumination, Emotional Approach Coping, Deliberate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